

[A+] 금융인 맞춤형전도집회

결신을 및 인터뷰

하용조 목사 / 온누리교회 / 2005 / 페이지수 : 3

1. 결신을

하나님 만난 금융인 '내 인생은 A+'

지난 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열린 금융인을 위한 전도집회 'A+'에 총 1,617명이 참석해 1,215명이 결신, 75%의 결신율을 나타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금융인 1천20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A+인생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온누리 금융인을 비롯해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로 준비한 금융인들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A+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가 5~7일 서빙고 본당에서 성황을 이뤘다.

증권, 보험, 은행 순으로 각각 하루씩 열린 이번 집회의 전체 결신율은 75%로 그동안 맞춤형전도 집회 사상 최고의 결신율을 나타냈다. 첫날 총 421명의 대상자중 297명이 결신했고, 둘째날은 대상자 528명중 424명이, 마지막날은 대상자 662명중 494명이 결신해 총 1천617명 참석해 1천215명이 결신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금융인들을 위해 하용조 목사는 각 분야별로 인생, 꿈, 행복을 주제로 시대적 방향성에 맞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 목사는 진정한 인생의 꿈과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하며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금융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건넸다.

전도집회 담당 여성민 목사는 "격무로 늦게 퇴근하는 금융인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의자를 더 놓아야 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이 참석했다"며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참석한 분들을 위해 후속 프로그램인 스쿨 등을 통해 계속 케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맞춤형전도와 같이 이번 집회에서도 관계중심의 전도가 큰 힘을 발휘했다. 한국투자증권 상무로 일하는 김정관 성도의 경우, 첫날 증권인을 위한 전도집회에 220여 명을 초대했다. 김정관 성도가 초청한 증권인들은 "직장의 높은 상사의 권유여서가 아니라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기엔 흔쾌히 왔다"고 입을 모았다. 또 어떤 성도는 10년간 증권인인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늘 아내를 핍박했던 그가 이번 집회 첫날 와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다음날 친구들까지 데리고 참석하기도 했다. / 임재금 기자 ljg14@onnuri.or.kr

2. 인터뷰

머리를 맞은 듯합니다 / 조은희

저는 원래 불교집안인데 직장 신우회를 통해 기독교에 대해 조금씩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존경하는 직장 선배로부터 이 콘서트에 오자는 제의를 받고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엄숙한 분위기로 생각해왔는데 온누리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테이블 셋팅까지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 말씀 중에 '내 인생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라는 질문에 머리를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는 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내 편협한 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수한 믿음으로 열심히 전진한다면 하늘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교훈을 얻고 장미꽃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귀한 시간을 주신 온누리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 이승희

바쁘게 움직이는 증권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점장님을 비롯해 윗분들과 일반 직원들의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리더십'에 대한 많은 부담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관 상무님께서 저희 지점장님께 콘서트가 있으니 와서 보고 식사도 함께 하자고 하셔서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연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와서 보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아는 곡도 연주되고 여러 가지 훌륭한 공연도 보고 좋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도 사심없이 전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좋았고, 교회를 있는 그대로 말씀 하시는 부분도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예배와 같은 교회 분위기가 낯설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바쁜 일상중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다시 생각하게 해 준 집회 / 박병동

같은 직장 동료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며 A+ 전도집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나왔는데 와 보니 좋네요. 교회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내용도 좋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들으며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렇게 굳은 사람은 아니라서요(웃음) 교회에 한 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 되실 거예요" / 임수정

정말 좋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교회 분위기도 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초대해 조금은 강제로 이끌려 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보험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되었어요. 예전에 성당에 잠시 다니고 한동안 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집회를 베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A+ 를 주고 싶은 집회였습니다 / 양원용

많은 분들에게 초청받아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월에 후속 양육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그때도 찾아올 생각입니다. 보험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였는데 우리 일상과 아주 잘 맞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A+을 주고 싶습니다. '보험인의 하루'라는 영상 에세이를 보며 바로 내 일상이다 느꼈고 '이런 고객 꼭 있다 맞아맞아 베스트'에 나온 6가지 유형이 모두 제가 겪었던 고객이라 무척 공감했습니다. '마음을 열라'는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았고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에 다녔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영부영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전부터 교회에 다녀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번 집회가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긴 한데 거리가 멀어서 집 근처 가까운 교회에 집사람과 같이 나가려 합니다.

/ 전성희 기자

*** 출처 : 온 누 리 신 문**